

국민행복시대! 창조과학기술로 앞당기겠습니다.

2013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 2013년 1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750여 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함께해 축하했다.

새해 국정운영의 중심은 과학기술

글 임동욱 과총 객원기자 im.dong.uk@gmail.com

올 해는 과학기술계에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날아들 전망이다. 우선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부활이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 진행된다. 1월 말에는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재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2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향후 해법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기대 속에서 새해의 포부와 희망을 나누는 '2013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국민행복시대! 창조과

학기술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750여 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이날 신년회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박 당선인이 공식적인 첫 신년행사에 참석한 것이 이번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가 처음이다.

행사를 주최한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자연이공계 출신 대통령의 탄생을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해 축하한다"며 과학기술계의 인연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과총 주최의 '과학기술 나눔마라톤 축제'에도 등번호 13번으로 참

가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국가R&D 혁신시스템의 재정립,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묵은 것은 털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소개했다. 이어 “연구현장에서 헌신하는 과학기술인들도 창조와 선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기술계를 든든한 친정으로 여기고 지식강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책 실현에 과기인 목소리 반영되길

본 행사가 시작되자 무대 중앙에 ‘당신의 행복한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라는 질문이 등장하며 주제영상물이 상영되었다. 1962년 연구용 원자로 운전 시작부터 2012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출범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사와 과거의 업적을 소개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세계 2위, 총연구개발비 규모 세계 6위, 과학경쟁력 평가 세계 5위 등 현재의 발전상도 등장했다.

영상물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시작될 미래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창조적 국가R&D 혁신시스템의 구축,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든든한 복지 지원,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구자로 도약, 융합인재교육으로 창의인재 양성 등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전망이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새해 소망



▶▶ 박상대 과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을 듣는 순서가 계속되었다.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올해는 지식기반시대의 새로운 기적이 펼쳐질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국가 창조경제 구현 등을 언급했다.

국가과학자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공계 대학생

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며 연구기관마다 보육시설을 설치해 인재 확보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오영제 한국과학기술원(KIST) 책임연구원은 “지난 대선 공약에 과학기술인의 연구자육성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며 출연연 거버넌스, 정년 환원, 연구환경 개선, 지역·계층 간 소통 등 과학기술정책 실현 과정에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창조적 성장정책으로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이어 ‘국민 소망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지난해 12월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포스트잇에 새해 소망을 적어 대형 설치판을 장식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 소망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홍채영 늘푸른초등학교 학생이 박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당선인은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화답의 격려사를 시작했다. 이공계 출신인 박 당선인은 “제가 전자공학과를 선택



▶▶ 신년 인사를 하고 있는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오영제 한국과학기술원(KIST) 책임연구원(왼쪽부터)



했던 이유도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믿었다”며 “과학기술은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이며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정책과 경제활성화를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기조로 삼을 예정이다. 당선인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기초과학연구의 투자를 줄이면 국가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에도 국가R&D 예산을 확대해 고급인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선인은 특히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주었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마음 놓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이 세계 과학기술계를 선도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만든 주인공이자 미래 발전의 핵심은 과학기술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인들 마음껏 능력 펼치는 시대 바란다

새로운 한 해를 뛰기에 앞서 결의를 다지는 건배 제의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과학기술포럼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계 출신 대통령이 참석해 기쁘고 값진 신년인사회를 맞이했다”며 “지역 갈등과 글로벌 경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국내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과학기술인들이 다시 한 번 국가 발전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옥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책임연구원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첫 이공계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남녀 구별 없이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이어 “새해 덕담은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통”이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 참 잘했다”고 구호를 외쳤다. **ST**



▶ 홍채영 늘푸른초등학교 학생이 박 당선인에게 국민소망을 담은 포스트잇을 전달하고 있다.

‘2013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격려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상대 회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과총도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공계출신인데 제가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켜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과학기술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과학기술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학기술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중요한 기조로 삼아서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라고 해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를 줄이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한 바와 같이 국가 총연구개발예산을 확대해 고급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마음놓고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의 발전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슬로건인 ‘국민행복시대! 창조과학기술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슬로건 잘 내거셨습니다. 국민행복시대는 창조과학기술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